광주형 AI-뉴딜 사업 확산 나선다

광산구,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
동구, VR 예술길·NFT 브릿지
북구, 드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자치구 공모 3개 사업 선정

광주시가 자치구와 함께 광주형 인공지능 뉴딜 사업 확산에 나선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형 AI-뉴딜 자치구 대상 우수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의 대전환을 견인할 광주형 AI-뉴딜의 지역 확산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자치구 우수 뉴딜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선정된 사업은 ▲AI 기반 전기차 충전구역 지능형 관리 서비스 사업(광산구) ▲창조의 매트릭스 NFT 예술 브릿지 구축(동구) ▲드론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허브도시 조성(북구) 등으로, 시비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광산시민행복주차장 플랫폼(APP)'을 활용해 관내 공영·공유주차장의 위치와 주차가능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관내 30곳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인공지능 센서를 추가 설치·관리해 전기차 충전가능 현황 및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 계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차장과 인근 상권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 편익을 높이고 생활 밀접 인공지능(AI) 도시환경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예술의 거리 근대건축물을 배경으로 가상미술관(VR)을 구축·운영하고, 어디서나 누구나 지역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펀(Fun)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엔에프티 아트(NFT ART)의 전세계 확산에 맞춰 지역 예술가와 시민의 새로운 디지털 예술시장의 경험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NFT ART 국제공모전도 추진해 선정된 작품을 메이저급 마켓플레이스 등에 선보이고 스타작가 발굴 등 지역 예술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광주의 11대 대표산업인 드론을 활용해 겨울철 블랙아이스 감지, 자전거도로 관리, 불법 쓰레기 순찰, 공사현장 비산먼지 불법 배출 단속 등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환경을 구축한다.

김정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형 AI-뉴딜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광주형일자리 성공,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결실을 거뒀다"며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광주형 AI-뉴딜의 지역 확산과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천 친수공간 현장 점검 문영훈(가운데)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광주천을 찾아 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산책로 등 시민 친수공간을 현장 점검하고, 광주천이 쾌적한 도심 문화·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물 개선 관리 등을 당부했다.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운영

광주시 어린이·장애인 등 대상
기관·시설별 자율 신청 접수

광주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은 신체·사회·경제적 등의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관련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안전 취약계층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자격을 가진 재난안전 전문강사가 지정 장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화상교육장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제 교육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분야별 총 72명의 강사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소규모 및 비대면 화상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해 153회, 2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이주 노동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 구성원과 시설 관리자 등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강사 배정과 일정 조정을 위해 교육 희망일 1개월 전 시 홈페이지 바로예약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어려운 계층이 더 쉽고 편리하게 안전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정규직 21명 채용

18일~22일 응시지원서 접수

광주도시공사는 "2022년 상반기 광주시 통합채용을 통해 정규직 21명을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 6명, 기술 8명, 업무 7명 등 총 21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4명은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보훈가정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공통 자격사항과 선발분야별로 자격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공사 제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채용절차는 응시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순으로 치러지고, 응시지원서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다. 채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사소식-공고'란 또는 '광주광역시 통합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지속적인 신규채용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하여 능력 있는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녹색자금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소화천사의 집 녹색공간 조성

광주시는 "2021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서 종합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거주공간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숲 등의 녹색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15개 시·도에서 총 48개 사업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소화천사의 집(남구 용대로 74번길 25-1)에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사회 약자층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는 종합, 나눔숲 조성, 나눔길 조성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광주시는 종합부문 우수기관으로,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는 나눔숲 조성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매년 1~5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고 올해까지 42억원을 투입해 소화천사의 집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정강욱 광주시 녹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개발 사업 공모

광주시, 수행 단체 12일 접수

광주시는 "경쟁력 있는 인문 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개발 사업'을 수행할 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의 근·현대 인문자원을 미래문화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문스토리 자원 발굴 및 아카이빙',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기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인프라 마련' 등이다.

신청자격은 광주시 소재 인문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다. 신청서는 오는 12일 시청 1층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 수행 단체는 이달 중순 예정인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심사를 거친 뒤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5월께 선정할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사업은 근·현대 인문자산을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인문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에도 인문환경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진 참신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인문 활동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11개 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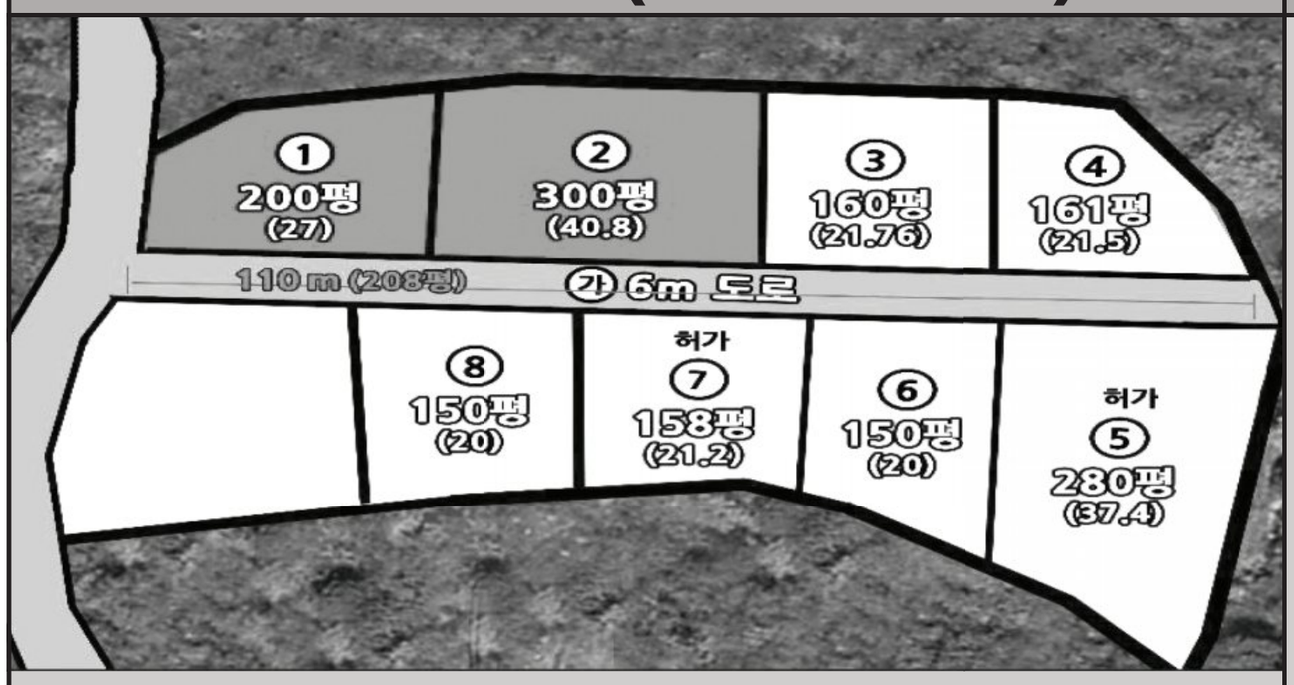
광주시는 "지역 11개 기업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살랑가 협동조합, 남도청년보부상 협동조합은 신규로 지정됐으며 본빵 협동조합, 푸른도시원예 협동조합은 재지정됐다.

승진어패럴, 바이오씨앗 협동조합, 공하나 협동조합, 양림펭귄마을 협동조합, 빛고을공예 협동조합, 어울림 협동조합, 나무로 협동조합 등 7곳은 고도화 마을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관할 자치구와 약정 후 신규(1차연도) 5000만원, 재지정(2차연도) 5000만원, 고도화(3차연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8곳이 지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